

# 살인 폭염에 초강력 대책 가동

임실, 5명 인명피해 발생  
무더위 쉼터·살수차 등  
적극 운영... 피해 최소화



임실군이 강력한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살수차를 운영해 거리의 무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임실군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임실군의 최고기온은 36도를 기록하고, 운영 집현에 따른 5명(사망 1명·발생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피해는 4만7,033마리, 농어업 피해는 소가리 7만마리가 각각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다양한 폭염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내 332개소 무더위 쉼터의 이용 강화를 적극 홍보하고,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방문보건인력 및 노인돌봄비, 이장 등 308명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들이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특히 관내 터미널 4곳(임실, 오수, 관촌, 강진)에 40kg짜리 얼음을 2개씩 각각 비치, 버스이용 승객들의 무더위를 식혀주는 효과노트를 특별히 하고 있다.

임실, 오수, 관촌 등 주요 간선도로

16개 노선에 살수차를 운영해 거리의 뜨거운 기운을 식혀주고 있다.

관내 공사장 인부들을 위한 무더위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관촌 등 주요 공사장에 간이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 폭염에 지친 인부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과 장애인, 운영질환자 등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352가구를 8월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방문해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을 세우고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 대상가구를 방문해 쿨매트, 휴대용 선풍기 등도

지원하고 있다.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해 어려움이냐 문제가 있는지 생활실태도 점검해 공적지원을 추진하고, 민간복지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보건소, 소방서 등 기관과도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은 농촌지역이자,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행정이나서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폭염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폭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지 20여 년 만에 집필

막바지 단계... 10월 최종본

27일까지 원고 주민열람 실시



임실군이 집필 막바지에 접어든 임실군지 원고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군은 20여년 만에 집필 중에 있는 임실군지 집필원고의 주민 열람기간을 설정하고 군청 및 각 읍면에 비치,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차 집필을 마친 임실군지 원고는 오는 27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서 주민열람을 거쳐 모자라거나 빠진 부분, 보완되어야 할 내용 등을 청취하게 된다.

임실군지는 1997년도 집필된 이후 20년 만에 집필되는 것으로 임실군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교육 등 그동안 임실군의 발전상과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집필하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 벗집환원사업 신청 접수

남원시는 토양의 지력 향상을 위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벗집환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전복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한 뒤 재배농지에 벗집을 잘게 잘라 가을갈이를 실시한 농업인으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0.1~3ha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지 확인을 거쳐 가을갈이를 실시한 농업인에 한해 1ha당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이를 위해 총사업비 3억7천4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준우 남원시 농정과장은 "유기물과 규산이 풍부한 벗집을 논에 환원하면 지력 상승 효과가 있어 건강한 벼 생육이 가능하고, 등숙률과 완전미율이 높아져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쌀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벗집환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수확한 벗집은 반드시 생산된 논에 재투입 돼야 한다면서, 벗집의 유기물이 논 지력을 향상시키는 물론 농가는 비료 구입비를 절감하는 등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순창군은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8년도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중심의 맞춤형 보건사업 수행과 지역에 맞는 건강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지역 건강통계 조사다.

순창군은 지난 3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사원 6명을 채용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조사원이 표본 가구에 직접 방문해 1:1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내용은 올해 처음 도입된 신체계측(혈압, 키, 체중)조사와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순상, 삶의 질, 의료이용, 경제활동 등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통합건강 증진사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 지표로 활용될 방침이다. 군에서는 표본가구 가구원 중 조사에 응한 지역주민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답례품(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순창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표본가구 가구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순창군 보건 발전에 한 몫을 할 것"이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청년이 살기좋은 남원 건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행안부에서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7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7개 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의원을 비롯해 관내 고등학교 취업관련 담당교사와 청년 70여명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업인턴제를 비롯한 7개 사업의 각 담당자들이 지원 자격,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사항을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남원시 청년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 참석 청년들을 테이블 별로 그룹을 이루어 남원의 일거리, 먹거리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시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시간에는 공통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에 나섰다.

한편, 이번 참여자 모집은 관내 비경제활동인구 중 만18세~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7개 세부사업별 지원내용과 근무조건, 신청서류 등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오는 10일까지 해당 실과 및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을 거쳐 8월말 최종 선발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김완식 경제과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으며,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남원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장류축제 온라인 홍보 박차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남)에서는 10월 19일에 열리는 순창장류축제의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해 SNS홍보 서포터즈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SNS 서포터즈는 "제13회 순창장류축제"의 생생한 소식과 달라지는 축제 이모저모를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생 소통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30명 내외로 활동기간은 8. 27부터 10. 31까지이며, 대상지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이용자가 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1등 20만원, 2등 10만원, 3등 5만원의 상금을 주며, 서포터즈 활동에 1회 이상 참가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장류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류축제 홈페이지 또는 순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